

7대 종교인 ‘아름다운 걷기’

장애인 후원을 위해 불교 개신교 등 7대 종교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종교인평화봉사단은 9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올림픽공원 88마당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 성직자와 신자들이 참여하는 '2006 이웃종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걷기대회는 7대종교 성직자들을 선두로 88마당 인근 4km 구간을 걸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9월 16일 '이웃종교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수익·후원금 전액 장애인 휠체어 지원

진행된다.

풍물패 길놀이와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와 종교화합 퍼포먼스, 걷기 코스 구간별 건강검진·발마사지 부스 설치,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캐릭터 퍼포먼스 등 부대행사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운다.

또 장애인 발언대, 장애인 머리손질 코너, 장애인 안경 맞춰주기 등

장애인을 위한 행사와 어린이 에어바운스, 가족포토존, 함께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의 수익금과 후원금은 전액 장애인 휠체어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별 참가 신청은 물론 종교와 무관한 단체, 가족, 개인별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1000원이며, 참가 학생에게는 봉사활동확인서가 발부된다.

종교인평화봉사단 관계자는 "7대 종교인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호흡하며 공동선을 실천하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종교간 화해를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02)782-5700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명숙 국무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 8월 14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나눔의 집 방문 "하루빨리 사과 협상 마무리 짓겠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8월 14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 여성가족부 김장순 차관, 조약동 광주시장 등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원장 원행)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할머니들의 고통을 듣고 나눔의 집 역사관을 둘러본 후 박두리 할머니를 추모하며 분향과 묵념을 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한 총리는 "얼마 전에도 나눔의 집을 방문했는데 해마다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며 "할머니들께서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빨리 일본과의 협상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나눔의 집'이 건립을 추진 중

인 전문노인요양시설이 환경법 때문에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할머니들의 고통을 전해들은 한 총리는 "여성부와 환경부 관련법들을 검토해 할머니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아름다운 재단'에 5천만 원을 희사한 김군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따로 면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방문객들에게 "신사참배와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게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러한 할머니들의 바람도 헛되어,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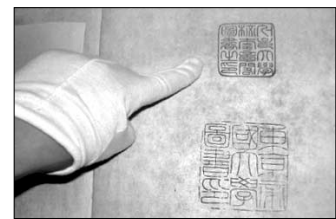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에 규장각 날인?

서울대 "자체 규정 따랐을 뿐"… 훼손 논란

93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오대산 사고본 47책, 조선왕조실록한국사학회 문화재청 주재로 8월 11일 월정사 사고지에서 열린 환국고유제 직후 <조선왕조실록>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조선왕조실록>에 서울대학교 규장각 장서인 '규장각도서지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밝혀져(사진) '서울대 측의 실록 선취취득과 문화재 훼손'이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규장각 자료관리실 관계자는 "장서인 날인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자료관리운영세칙 제5조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며 "장서인은 일시 소장했다더라도 기록과 함께 날인해야하고 소장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장서의 이동경로(서책의 내력을 확인시켜 주는 기록을



소머 장서인은 자료의 간지 여백에 날인했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훼손은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왕조실록한국사학회 관계자는 "규장각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장서인을 찍은 것은 실록이 가져다 주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무시한 행동이며 아직까지 소장 처와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이 장서인을 찍은 것은 차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북 수재민돕기 1억 모금 종단협, 조불련에 전달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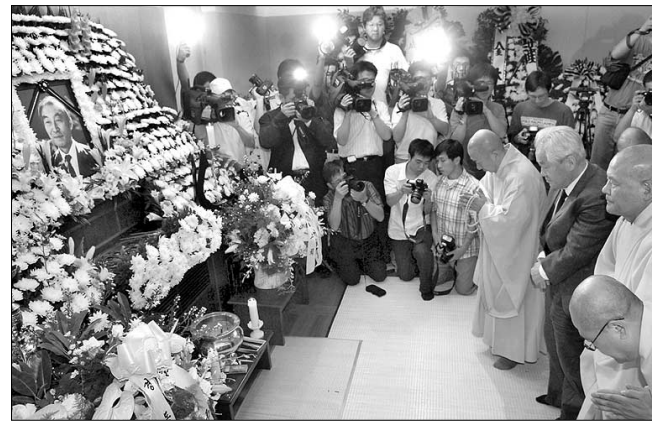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8월 17일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종단협은 조계종이 먼저 약정한 5000만원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7개 회원종단이 동참해 1억원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모아진 성금

은 구조물품 형태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에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이미) 확보해 놓은 5억원 상당의 현물을 함께 전달한다.

한편 종단협은, 앞서 각 종단이 각 출한 2930만원 가운데 우선 1500만 원을 불교TV에서 모금한 5800만원과 합쳐 강원도 인제지역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조종수 기자

종교간 화합 이끈 큰어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마련된 강원용 목사 빈소를 찾아 분향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강원용 목사 타계

종교화해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종교인으로 꼽히는 강원용 목사가 8월 17일 오후 12시 5분 별세했다. 향년 89세.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한 강원용 목사는 열린 마음으로 종교간 대화와 화해를 주도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특히 강목사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과 함께 종교간 대화를 여는 등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불교사상과 철학에 조예가 깊

은 그는 생명과 환경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종교로 불교를 꼽기도 했다. 또 2002년 민주화와 인간화운동에 힘쓴 공로로 불교계가 주는 만해평화상을 수상했다.

강원용 목사의 타계 소식을 접한 불교계는 이례적으로 추모하는 열기가 높다. 이웃종교 지도자인 강원용 목사가 그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은 각각 17일과 18일 강원용 목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지관 스님은 "종교 간의 화합과

불교사상 철학에 조예 깊어

2002년 만해평화상 수상

불교계 추모 열기 뜨거워

사회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강원용 목사의 타계를 애도한다"며 "육신은 사대(四大)로 돌아가더라도 고인의 높은 열과 뜻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다하지 못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남(指南)이 되고 표상(表象)이 되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에 비뚤어진 종교적 야집과 독선, 과도한 종교적 표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종교용 강요 등을 치유하고자 한 강원용 목사의 뜻은 무한한 격려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강원용 목사는 크리스찬아카데미와 평화포럼을 설립해 종교간 대화운동과 평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한국기독교교장교회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강원용 목사님의 타계를 애도하며

이 땅의 산천초목도 강원용 목사님의 떠나심을 함께 애도하는 것 같습니다. 강목사님은 민족의 선지자로서 1959년 '크리스찬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열린 자세로 종교간 폭넓은 대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정파간 대화와 만남을 주선하여 상호 간극을 좁히고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끌어내는 일에 항상 앞을 서셨습니다.

또한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의 교조적 신념과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종교간 대화를 통한 공존과 협력을 이룩하는

데 헌신한 큰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불교를 여타 종교 보다 원용한 철학과 포용력을 가진 종교라고 칭찬했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철학이라고 인정할 만큼 넓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산상은 30여년 동안 강목사님과 함께 많은 종교지도자, 그리고 각계 인사들과 대화하였고,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90년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낸 일이나 IMF 위기때 실업극복운동본부 조직에 함께 활동하며 종교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강목사님은 문질(文質)을 함께

갖추신 인격과 지도력으로 만민을 이끄셨으며 성경 자구(字句)에 구애받지 않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안목을 가진 목자로서 민족과 민족장래에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때로는 개인교계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구애받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신 분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 오셨습니다.

수십년간 국내 뿐 아니라 국제간의 평화 실현을 위하여 큰 족적을 남기신 강원용 목사님의 명복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월주 스님(지구총공생회 이사장·전 조계종 총무원장)

학술원 우수도서에 '중론...' 등 불서 6권 선정

대한민국 학술원이 '2006년 우수 학술도서'로 불교서적 6권을 선정

했다. 학술원 우수도서는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불교시대사), <해초의 왕오천축국전>(학고재), <한국시의 불교적 상

상력>(역락),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서울대출판부), <고려불화>(한국의 불교음악)(운주사) 등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4세 삼장법사 종정 봉해 대종사 취임 및 제7대 총무원장 지공 종사 취임법요식



귀의삼보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중하시는 전국종도 여러분과 일봉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근번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산하 본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 및 지난 중정추대위원회 및 중앙총회에서 추대된 제4세 봉해 대종사추대 및 제7대 총무원장 지공 종사의 취임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봉존자예하의 범부승수와 유지보존 및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이사장	경원
재단상무이사	해광
재단이사	해운, 도기, 일명, 지공, 화엄, 법광, 담화
재단감사	해천, 해원

- 다 음**
- 1.일 시 : 2006년 9월 1일(음. 윤 7. 9) 금요일 오후 12시
 - 2.장 소 : 인천 라마다(송도비치)호텔
 - 3.복 장 : ①스님은 가사장삼 ②법사는 법복
 - 4.준비사항 : 당일 11시30분까지 입장완료
 - 5.연 락 처 : 총무원/봉행위원회 02)998-8161, 2

대 법 주 명	제4세 종정 봉해 대종사 무찰스님, 금봉스님, 청송스님, 원각스님, 수암스님, 명중스님, 해운스님, 도기스님, 동봉스님
대 회 장	총무원장 지공 종사
봉 행 위 원 장	종회의장 화엄
봉 행 부 위 원 장	종회부의장 경원
추 진 위 원 장	교육원장 원각
추 진 부 위 원 장	부산총무원장 대우, 서울총무원장 응천
준 비 위 원 장	총무부위원장 해천
준 비 부 위 원 장	대구총무원장 석담, 대전총무원장 도안
집 행 위 원 장	호계원장 용암
집 행 부 위 원 장	강원동부총무원장 보해, 강원서부총무원장 동청
기 획 위 원 장	포교원장 정수
기 획 부 위 원 장	울산총무원장 도현, 경기북부총무원장 도해
진 행 위 원 장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진 행 부 위 원 장	전남총무원장 해성, 제주총무원장 경운

총무부과위원장	총무부장 영명
교무부과위원장	교무부장 지언
재무부과위원장	재무부장 유정
재무부과위원회	재무국장 일명
섭외부과위원장	경기남부총무원장 윤봉
섭외부과위원회	사회국장 영우
홍보부과위원장	홍보부장 대호
동원부과위원장	포교부장 해공
봉사부과위원장	교육부장 법해
경호부과위원장	규정부장 지성
감사부과위원장	감사원장 법성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취임대법회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종회의장 화엄 대 회 장 총무원장 지공